

고환율에 고유가 지속...한전, 적자 언제 해소하나

에너지 원자재 94% 수입 의존... '총부채 204조원' 재무 부담 가중 국제 유가 오르며 LNG 상승 추세... 전력 도매가 상승에 지출 증가 우려

총부채만 204조원에 달하는 한국전력공사(한전)의 핵심 목표인 '재무구조 정상화'가 압축을 만났다. 산업용을 제외하면 전기요금 인상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례적인 수준의 고환율,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국제 유가 등으로 에너지 원자재 구입 및 생산비 증가가 예상되면서다.

특히 대부분의 에너지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끝없이 치솟는 원·달러 환율과 국제 유가가 한전의 재무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4일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따르면 국제유가는 지난 13일 기준 두바이유가 배럴 당 82.41달러로 지난해 10월 8일(78.98달러) 이후 3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두바이유는 지난해 11월 18일 배럴 당 70.53달러를 기록한 뒤 2달 가까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 밖에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역시 지난 13일 기준 각각 81.01달러, 78.82달러

로 높은 수준을 기록해 지난해 8월 기록한 최고치 경신을 앞두고 있다. 국제 유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 초까지도 70달러 초반대를 기록했지만, 연말에 급격히 치솟아 현재는 80달러 선을 상회하고 있다. 급격한 국제 유가 상승은 최근 미국의 러시아 석유 제재에 따른 여파로 분석된다. 더불어 이달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12·3비상계엄 선포 및 대통령 탄핵 정국 등으로 대내외적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국제 유가가 뛰면서 한전의 경영난도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전의 전체 매출 중 60%가량은 전기판매 사업 매출인데,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구매하는 전력 도매가(SMP)를 결정할 때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특히 국제 유가가 오르면 LNG 가격 역시 2~3주 간격을 두고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전세에서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 SMP가 상승할 시 한전의 전력 구매 지출이 대폭 증가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 한전이 지난해 3분기 연결기준 37조 6906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업용·주거용 등 전반적인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이 필수적이지만, 정부가 혼란스러운 국내 정치 상황과 고물가 추세로 인한 민생 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만큼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 고환율도 한전의 재정난 극복에 발목을 붙잡고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원자재의 94%가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급격히 치솟은 원·달러 환율이 회복세를 보이지 않으면서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초 1300원 초반대를 기록했지만, 지속 상승해 11월에는 1400원대를 돌파했고, 12·3비상계엄 선포를 기점으로 급격히 치솟았다. 현재는 1460~1470원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게다가 이달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급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 정세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조만간 1500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만큼, 한전의 재무구조 정상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전KDN, AI·SW 교육강사 양성과정 운영

지역 대학생 대상 프로그램 진행

한전KDN이 '2025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교육강사 양성과정'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에 나선다.

<사진>

AI·SW 교육강사 양성과정은 한전KDN이 매년 시행하는 산·학·관 협력 프로젝트로, 오픈캠퍼스 교육과정의 일환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전남지역의 AI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018년 조선대학교를 시작으로, 원광대학교 등 SW 중심 대학 및 전남 교육청, 전북교육청과 함께하는 협력사업이다.

한전KDN은 지난 6일 AI·SW 교육강사 양성과정 개강식을 개최하고, 오는 24일까지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AI·SW 교육강사 육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오는 15일까지는 한전KDN 본사 교육관에서 각 분야의 새내기들이 강사로 나서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력산업의 AI 적용사례 ▲AI지도사 자격 과정 ▲취업 지도를 위한 진로 특강 등을 교육한다.

해당 프로그램을 수료한 지역 대학생들은 'SW 코딩교육 강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올해는 순천대 학생 17명이 프로그램을 수료한 뒤 AI·SW 코딩교육 전문 강사로서 지역 소재 초·중등학교에 SW 코딩 교육기부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박상형 한전KDN 사장은 "최근 수년의 사례를 통해 인공지능 분야의 혁신적 발전을 경험하고 있고, 산업 전반에 대한 새로운 인공지능 활용 아이디어 발굴이 필수적이다"며 "앞으로도 지역 청년을 포함한 지속적인 디지털 인재 양성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전력거래소, 설명절 청탁금지 캠페인 진행

한전KDN·한전KPS·사학연금 동참... 청탁금지법 개정 내용 등 안내

한국전력거래소가 14일 빛가람혁신도시에서 나주시 및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3곳과 함께 '설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윤병태 나주시장과 정동희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함께 캠페인을 진행한 한전KDN과 한전KPS, 사학연금공단의 기관장과 직원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각 기관장들과 직원들이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청탁금지법 개정내용을 지역민들에게 직접 안내하는 등 청렴문화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각 기관에서 안내한 개정내용으로는 이번 설 명절 기간동안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 선물 금액이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점, 공직자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어떠한

선물도 주고 받을 수 없다는 점 등이 있다.

정동희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은 "한국전력거래소는 본사 1층 로비에 설 명절 대비 부패방지 문구를 게시하는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본사 직원을 비롯한 지역민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내용을 수시로 알리는 등 청렴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민생경제 회복 힘 모은다

구내식당 휴무제 확대 등 논의

나주시가 지난 10일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5개사와 간담회를 열고 지역 민생경제 회복 방안을 모색했다.

<사진>

이번 간담회에는 나주시를 비롯,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6곳 중 15곳이 참여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자체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참석한 기관들은 기관별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공유하고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한전KDN은 이달부터 주 1회 운영하는 '구내식당 휴무제'를 주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임직원 대상 기부금·포상금을 나주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키



로 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주 1회인 구내식당 휴무

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나주시사랑상품권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인터넷진흥원, 자율형 공립고 재학생 '개인정보 보호' 특화 교육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나주시와 함께 지역 소재 자율형 공립고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는 17일까지 '개인정보·정보보호 특화 교육과정'을 실시한다.

<사진>

이번 교육과정은 ▲개인정보·정보보호 이론 및 실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네이버, 현대자동차 등 국내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 탐방 ▲명사 특강이 포함된 진로 탐색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지난해 2월 나주시는 교육부가 추진한 교육발전특구 공보 사업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KISA는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해 이번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다.



김주영 KISA 개인정보안전활용본부장은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지역 학생들이 개인정보·정보보호 분야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향후 진로선택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KISA의

정보 분야 전문성을 활용해,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룩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